

노인장기요양제도 내 간호관련 연구 동향과 시사점*

임지영¹⁾ · 김예서²⁾ · 송성숙³⁾ · 김성준⁴⁾

서론

연구의 필요성

2022년은 노인장기요양제도가 시작된 지 14년이 되는 해이다. 노인장기요양제도는 베이비 부머 세대의 노인 인구 진입과 가족 부양 의식 약화로 인한 장기요양 수요 급증 등 인구 사회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작되었다. 현재는 중, 장기적 관점에서의 실천계획 수립을 중점으로 하는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2018~2022)이 수립되어 진행되고 있다[1]. 노인장기요양제도 내 간호의 역할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 필요성과 이에 따른 역할 확대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어 왔다. Hwang [2]은 가족 간병 지원과 같은 지역 밀착형 서비스를 통해 노인이 정든 지역에서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가 필요하나, 활동지원에 관한 추가 급여와 같은 실제적인 실행 계획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간호인력 관련에서는 Lim 등[3]은 노인장기요양제도 내 활동하고 있는 간호인력의 확충과 유입을 위한 논의에서 신규 인력 진입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근로조건 개선과 장기요양기관에서의 역할 및 업무 내용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간호서비스 관련에서는 Park과 Lim [4]은 오마하시스템을 적용한 방문간호 서비스 항목을 추가 개발하고 이를 적용할

수 있는 통합 프레임워크를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고, Lee와 Kim [5]은 노인성 질환을 예방하는 예방적인 서비스 도입 및 활성화로 사회적 비용 절감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하였다. Byun [6]은 재활간호, 지지간호, 통증간호, 임종간호 등을 표준 방문간호서비스에 추가함으로써 대상자의 질병 관리를 통한 기능회복은 물론 건강위험요인의 조기 발견을 통한 건강을 유지·증진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장기요양제도 내 간호서비스 확대와 간호사의 역할 활성화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관점에서의 장애 요인이 제시되어 왔는데, Hwang과 Park [7]은 제도적 측면에서 간호사가 방문간호 이용 계획을 수립하는 데 참여가 제한되어 방문간호 제공 자체가 제한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향후 장기 요양 등급 판정에 간호사의 참여율을 높여 등급 판정 시 의료적 요구를 충분히 반영한 개별적 사례관리가 수행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Lim 등[8]은 대상자의 투약관리, 건강사정, 예방관리 및 자가관리를 위한 기본방문간호 수가를 신설하고, 기존의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상에 방문간호 이용을 필수사항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Kang 등[9]은 장기요양요원의 고용 안정성 확보, 전문성 강화와 요양서비스의 질 개선을 위한 장기요양교육 강화, 처우 개선, 인권 보호, 인력 충원, 사회적 인식 제고에 대한 정책적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Lee 등[10]도 의료와 요양 서비스의 통합 제공을 위하여 방문간호사를 센터장으로 하는 지역 통합서비스

주요어 : 노인장기요양, 간호사, 간호, 체계적 문헌고찰

* 이 성과는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o.NRF-2020R1A2C1003670).

1) 인하대학교 간호학과, 교수(<https://orcid.org/0000-0001-9561-4678>)

2) 인하대학교 간호학과, 석사과정생(<https://orcid.org/0000-0003-0438-303X>) (교신저자 E-mail: heartofgold1590@gmail.com)

3) 인하대학교 간호학과, 박사과정생(<https://orcid.org/0000-0002-8061-5659>)

4) 인하대학교 간호학과, 석사과정생(<https://orcid.org/0000-0002-7076-2065>)

투고일: 2022년 3월 23일 수정일: 2022년 4월 8일 게재확정일: 2022년 4월 13일

센터 설립이 필요하며, 이를 추진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이 따라야 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다양한 연구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노인장기요양제도 내 재가급여 서비스 기관 중 방문간호가 차지하는 비율은 2% 내외에 머무르고 있다[11]. 이러한 현상은 제도 시작 원년인 2008년부터 10년의 세월을 넘어선 현 시점까지도 극복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그 동안 국내에서 이루어진 노인장기요양제도 관련 연구 중 간호와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체계적 문헌고찰을 이용하여 포괄적으로 접근, 분석함으로써 그동안 이루어진 노인장기요양제도 내 간호관련 연구의 동향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과 맞물려 간호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연구 목적

- 2008년부터 최근까지 국내 학위논문 및 학술지 발표 논문을 대상으로 노인장기요양제도 내 간호관련 연구 논문을 체계적 문헌고찰을 이용하여 분석한다.
- 추출된 문헌을 대상으로 심층 내용분석을 이용하여 노인장기요양제도 내 간호관련 연구의 특성과 동향을 도출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제도 내 간호관련 연구 동향을 탐색하기 위한 이차 문헌분석 연구이다.

문헌의 선정기준 및 배제기준

노인장기요양제도 내 간호를 대상으로 한 문헌 전체를 대상으로 선정기준과 배제기준에 따라 선정하였다. 분석 대상 연구 문헌의 선정기준은 1) 노인장기요양제도를 대상으로 한 연구, 2) 간호 관련 변인을 포함한 연구이다. 배제기준은 1) 노인장기요양제도를 대상으로 하지 않은 연구, 2) 간호 관련 변인을 포함하지 않은 연구, 3) 학술대회 초록 발표 등 연구 설계 및 연구 결과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를 파악할 수 없는 연구, 4) 영어 혹은 한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발표된 연구, 5) 전문을 구할 수 없는 연구이다.

문헌 검색 및 추출 방법

국내 노인장기요양제도 내 간호관련 연구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 수집 검색 기간은 노인장기요양제도가 시작된 2008년 1

월부터 본 연구의 자료 추출 시점인 2021년 4월까지이다. 본 연구의 문헌은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코리아메드, 한국의학논문데이터베이스, 한국학술정보서비스, 과학기술정보통합서비스, 과학기술학회마을, 국회도서관 데이터베이스에서 수집하였다. 문헌 추출은 2021년 4월 29일부터 2021년 5월 3일까지 시행하였다. 검색어는 ‘노인장기요양’과 ‘간호’를 이용하였다.

문헌 검색 전략에 의해 총 577편이 검색되었고, 중복 출판된 문헌 51편을 제외하였다. 526편의 초록을 검토하여 장기노인요양제도를 대상으로 하지 않은 경우 57편, 간호 관련 변인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337편, 학술대회 발표집 등 연구 설계와 연구 결과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문헌 10편을 제외하였다. 문헌의 원문을 검토하여 연구대상에 간호 관련 변인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2편, 원문을 얻을 수 없는 문헌 1편, 조사연구 중 논문의 질 평가 점수가 8점 미만인 28편을 제외하여 총 91편의 논문을 분석에 사용하였다(Figure 1).

자료 분석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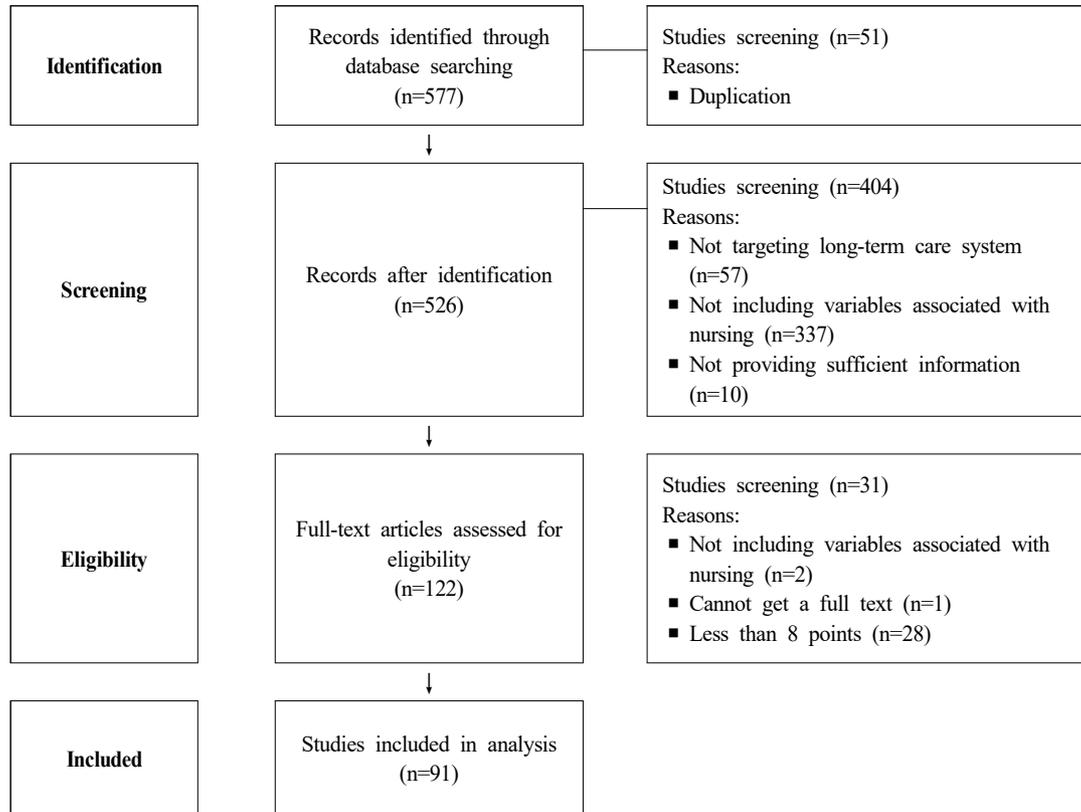
● 연구 문헌의 일반적 특성

최종 선택된 문헌의 일반적 특성은 출판년도, 출판유형, 연구설계, 연구비 지원 여부, 이론적 기틀의 5개 항목으로 분류하여 빈도와 백분율로 분석하였다.

● 노인장기요양제도 내 간호관련 연구 분류

노인장기요양제도 내 간호관련 연구의 심층 내용분석을 위해 연구방법을 중심으로 5개의 대분류로 분류하였다. 조사기반 연구는 양적 설문조사 연구를 포함하였다. 면담 및 전문가 자문 기반 연구는 델파이 조사,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이용한 면담 등을 포함하였다. 중재 및 효과 비교기반 연구는 실험설계 연구를 포함하였다. 질적 방법론기반 연구는 현상학적 연구, 질적 내용분석 연구, 해석학적 연구, 문화기술지 및 사례 연구를 포함하였다. 이차 분석 및 기타 연구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데이터베이스 분석, 자료포락분석, SWOT 분석, 매핑연구, DACUM 직무 분석 및 종설연구를 포함하였다.

선행연구에서 탐색된 광범위한 연구 변수는 Donabedian [12]의 모델을 이용하여 분류하였다. 본 모델은 의료서비스 질 평가를 위한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제반 요인을 투입, 과정, 산출의 세 측면으로 구분하여 접근하는 모델이다. 투입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요구되는 선행 속성을 지니는 요인으로 인적 요소, 물적 요소 등이 포함된다. 과정은 투입요소의 적절한 사용과 연계를 통해 실제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과 관련된 요인을 포함한다. 산출은 투입과 과정을 거쳐 얻어지는 결과로 환자 요소로는 사망률, 감염률, 환자만족도 등이, 조직 요소로는 직무만족, 조직몰입, 이직률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Donabedian [12]의 투



<Figure 1> Flow chart of study selection process

입-과정-산출의 개념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내 간호관련 연구에서 탐색한 변수들의 특성을 개괄적으로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 문헌의 질 평가

본 연구에서 선택된 양적 설문조사연구는 Cummings와 Estabrooks [13]이 개발한 연구의 질 평가 도구를 적용하여 문헌이 질을 평가하였다. 본 도구는 연구 설계, 표본크기의 적절성, 측정도구, 이론적 기틀, 및 통계분석방법에 대한 5개 영역, 13개 평가 항목으로 구성되었고, 연구 결과에 대한 연구 대상자의 대표성과 분석의 타당성 평가의 기준으로 적용된다. 평가 결과가 13점 기준에 8점 이상을 득한 연구를 연구의 질이 우수한 것으로 해석한다. 평가자간 일치도는 Kappa 계수 99.6%이었다.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연구 대상자 보호를 위해 연구책임자가 속한 소속 기관의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심의를 거쳐 심의면제 승인을 받았다(IRB No. 210429-1A). 수집된 자료는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하였으며, 자료는 즉시 코딩하

여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

분석 문헌의 일반적인 특성

국내 학술 데이터베이스에서 추출한 분석 대상 문헌은 총 91편이었다. 출판년도는 2018~2019년이 21편(23%)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출판유형은 석사 학위 논문 39편(42.9%), 학술지 논문 39편(42.9%)으로 파악되었다. 연구 설계는 양적 연구가 79편(86.8%)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연구비 지원을 받은 연구는 13편(14.3%)이었다. 이론적 기틀을 사용한 연구는 15건이었다(Table 1).

조사기반 연구

양적 설문조사 연구는 간호인력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32편(71.1%)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 간호서비스 제공의 영향 효과를 평가하는 연구가 9편(20%)으로 파악되었다. 연구 대상자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14편(31.1%)인 반면 간호사 외에 기타

인력을 포함한 연구도 21편(46.7%)에 달하였다. 편 당 연구 대상자 수는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이 33편(73.4%)으로 가장 많았다.

조사기반 연구에서 탐색된 연구 변수는 총 141개로 파악되었다. 91편 연구에서 약 1.5배에 달하는 연구 변수가 활용된 점을 파악하고 이러한 변수의 특징을 개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이론적 기틀로 Donabedian [12]의 투입-과정-산출 모델을 적용하여 분류하였다. 투입 영역은 26개(18.4%), 과정 영역은 41개(29.1%), 결과 영역은 70개(49.6%)로 결과 영역에 해당하는 변수가 가장 많이 탐색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연구에서 유의한 상관관계가 보고된 결과를 변수를 중심으로 요약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상관관계 분석이 가장 많이 이루어진 변수는 직무만족(10편, 10.0%)으로, 이와 .5 이상의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낸 변수는 근무환경, 인적자원관리, 병원조직문화로 파악되었다. 회귀분석에서 유의한 회귀계수가 보고된 결과를 요약한 분석에서는 종속변수 직무만족(3편, 14.3%)이 가장 많이 측정된 변수로 파악되었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개방적 의사소통, 공감소통, 외적 책임감, 간호사 직종은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지리적 대도시 위치는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서비스의 질(2편, 9.5%)에 대해서는 소득, 시간, 직무가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제언의 내용 분석 결과는 후속 연구 수행 40건(46.5%), 제도 개선 34건(39.5%), 정책 개발 12건(14.0%)의 순이었다(Table 2).

면담 및 전문가 자문기반 연구

면담 또는 전문가의 자문을 기반으로 한 연구는 총 15편이었다. 연구 목적은 표준 개발 또는 도구 개발이 7편(46.6%)으로 나타났다. 연구 설계는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이용한 면담 4편(26.7%), 도구 개발 4편(26.7%)이 사용되었다. 연구 대상이 간호사인 경우는 9편(60.0%)이었다. 연구 참여자 수는 30명 미만이 7편(46.7%)으로 대부분이었다.

연구에 사용된 변수를 Donabedian [12] 모델을 이용하여 분류한 결과, 투입 영역 9개(50.0%), 과정 영역 4개(22.2%), 결과 영역 5개(27.8%)로 분류되었다. 연구 제언의 내용 분석에서는 후속 연구 수행이 13건(48.2%)으로 다수를 차지하였다(Table 3).

중재 및 효과 비교기반 연구

중재 및 효과 비교 연구는 총 5편이었다. 5편 모두 유사실험 연구로, 연구 목적은 시스템 적용, 프로그램 적용 등이 4편(80.0%)이었고, 연구 대상은 간호사를 포함한 돌봄제공자가 3편(60.0%)으로 가장 많았다. 연구에 사용된 변수를 Donabedian [12]의 모델을 이용하여 분류한 결과, 투입 영역 4개(40.0%), 과정 영역 3개(30.0%), 결과 영역 3개(30.0%)로 분류되었다. 연구 제언의 내용 분석에서는 정책 개발과 후속 연구 수행이 각각 4건(40.0%)으로 파악되었다(Table 4).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Research

(N=91)

Variable		n (%)
Published year	2008-2009	11 (12.1)
	2010-2011	14 (15.4)
	2012-2013	14 (15.4)
	2014-2015	11 (12.1)
	2016-2017	10 (11.0)
	2018-2019	21 (23.0)
	2020-2021	10 (11.0)
Type of study	Master thesis	39 (42.9)
	Doctoral thesis	13 (14.2)
	Journal	39 (42.9)
Research design	Quantitative research	79 (86.8)
	Qualitative research	12 (13.2)
Funding	No	78 (85.7)
	National research fund	6 (6.6)
	Association fund	2 (2.2)
	School grant	5 (5.5)
Theoretical framework	Theory based	15 (16.5)
	No	76 (83.5)

질적 방법론기반 연구

질적 연구 방법을 기반으로 한 연구는 총 12편이었다. 연구 목적은 장기요양 돌봄제공자와 이용자의 경험을 확인하는 연구가 6편(50.0%)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연구 설계는 내용분석 연구가 5편(41.7%)으로 가장 많았다. 연구 대상은 노인장기요양 돌봄 제공자인 간호사가 8편(66.7%)으로 가장 많았다. 대상자

수는 10명~15명이 6편(50.0%)으로 가장 많았고, 평균 인터뷰 시간은 2시간 미만이 6편(50.0%)으로 확인되었다.

질적 연구에 활용된 이론적 기틀은 Colaizzi 2편(16.6%), van Manen 2편(16.6%)이었고 반면, 이론적 기틀이 적용되지 않은 연구가 5편(41.9%)으로 확인되었다. 연구 제언의 내용 분석 결과는 후속 연구 수행 15건(68.2%), 제도 개선 7건(31.8%)의 순이었다(Table 5).

〈Table 2〉 Summary of the Survey Research

(N=45)

Variables		n (%)		
	8	26 (57.8)		
Quality scoring	9	19 (42.2)		
	≥10	0 (0.0)		
Study goal	Review overall system	1 (2.2)		
	Nursing staff	32 (71.1)		
	The effectiveness of providing nursing services	9 (20.0)		
	Others	3 (6.7)		
Participants	Nurses	14 (31.1)		
	Nurses and staffs	21 (46.7)		
	Others	10 (22.2)		
The number of participants	<100	6 (13.3)		
	≥100~<300	33 (73.4)		
	≥300	6 (13.3)		
Donabedian (Duplicated) (n=141)	Variable analyzed more than two times (Frequency)			
	Input	Attitude and recognition in caring for elders (4) / Facility (4) / Policy (2) / Working environment (2) / Wage and welfare services (2)	26 (18.4)	
		Process	Nursing demand (5) / Social relationship and support (4) / Peer relationship (4) / workload (3) / interaction (2) / Human resource management (2)	41 (29.1)
	Output		Job satisfaction (10) / Job stress (6) / Turnover intention (4) / Burnout (3) / Quality of service (3) / Patients health (3) / Cognitive function (3) / ADL (3) / Organizational commitment (2) / Reward (2) / Depression (2) / Problematic behavior (2) / Emotional labor (2) / Resilience (2)	70 (49.6)
			Others	4 (2.9)
		Correlation (Duplicated) (n=100)	Coefficient (range: min~max)	
			Job satisfaction (.290~.591)	10 (10.0)
	Job stress (-.650~.480)		3 (3.0)	
	Nursing demand (-.620~.629)		3 (3.0)	
	Resilience (-.220~.530)		3 (3.0)	
Organizational commitment (-.384~.645)	2 (2.0)			
Service quality (-.244~.592)	2 (2.0)			
Others	77 (77.0)			
Regression (Duplicated) (n=21)	Job satisfaction (-.296~.336)	3 (14.3)		
	Service quality (.153~.500)	2 (9.5)		
	Burnout (-.680~.300)	2 (9.5)		
	Others	14 (66.7)		
Suggestion (Duplicated) (n=86)	Improving the system	34 (39.5)		
	Conducting further research	40 (46.5)		
	Development of policy	12 (14.0)		

이차 분석 및 기타 연구

이차 분석 및 기타 연구 방법을 기반으로 한 연구는 총 14편이었다. 연구 목적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연구가 8편(57.2%)를 차지했다. 연구 설계는 이차 자료 분석이 8편(57.2%)

로 대표적이었다. 분석 자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연구가 9편(64.3%)으로 가장 많았다.

연구에 사용된 변수를 Donabedian [12]의 모델을 이용하여 분류한 결과, 투입 영역 16개(55.2%), 결과 영역 13개(44.8%)로 분류되었다. 투입 변수로는 시설이 위치한 지역이 5편, 결과 변수

〈Table 3〉 Summary of the Professional Group Interview (N=15)

Variables		n (%)	
Study goal	Review overall system	4 (26.7)	
	Development of standard or instrument	7 (46.6)	
	Nursing staff	4 (26.7)	
Research design	Delphi	3 (20.0)	
	Focus group interview	4 (26.7)	
	Developing new instrument	4 (26.7)	
	DACUM	1 (6.7)	
	Policy evaluation	1 (6.7)	
	Mixed method	2 (13.2)	
	Participants		
Participants	Nurses	9 (60.0)	
	Nurses and staffs	3 (20.0)	
	Others	3 (20.0)	
The number of participants	<30	7 (46.7)	
	≥30~<100	3 (20.0)	
	≥100	5 (33.3)	
Variable analyzed more than two times (Frequency)			
Donabedian (Duplicated) (n=18)	Input	Standards (3)	9 (50.0)
	Process	Roles of visiting nurses (3)	4 (22.2)
	Output	Home care quality (2)	5 (27.8)
Suggestion (Duplicated) (n=27)	Improving the system		7 (25.9)
	Conducting further research		13 (48.2)
	Development of policy		7 (25.9)

〈Table 4〉 Summary of the Intervention and Effectiveness Comparison Study (N=5)

Variables		n (%)	
Study goal	Implementation of system and program	4 (80.0)	
	Effectiveness of nursing services	1 (20.0)	
Participants	Nurses	1 (20.0)	
	Nurses and staffs	3 (60.0)	
	Others	1 (20.0)	
The number of participants	<50	1 (20.0)	
	≥50 ~ <100	2 (40.0)	
	≥100	2 (40.0)	
Variable analyzed more than two times (Frequency)			
Donabedian (Duplicated) (n=10)	Input	Attitude (2) / Recognition (2)	4 (40.0)
	Process	Program (3)	3 (30.0)
	Output	Satisfaction (3)	3 (30.0)
Suggestion (Duplicated) (n=10)	Improving the system		2 (20.0)
	Conducting further research		4 (40.0)
	Development of policy		4 (40.0)

로는 입원일, 외래방문일이 각 3편에서 사용되었다. 과정 변수는 분석되지 않았다. 연구 제언의 내용분석 결과는 제도 개선이 10편(38.5%)으로 가장 많았다(Table 6).

논 의

노인장기요양제도 내 간호관련 연구 중 조사기반 연구를 분석한 결과, 직무만족, 직무스트레스, 근무환경, 소진 등 조직행동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가 다수의 연구에서 분석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장기요양제도 내 간호 업무, 직무 범위, 근무 영역 등에 연구자의 많은 관심이 있었음을 의미하며, 이러한 선행 연구 결과의 함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으로 압축되었다. 방문간호 활성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마련[9]과 방문간호 관련 법률 및 시행령의 개정[10]이 중심을 이

루었다. 그러나 조사한 연구 45편 중 노인장기요양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한 연구는 23편(51.1%)인 것에 비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연구한 것은 2편(7.7%)에 불과하여 향후 실제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제안하는 연구의 확대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일본의 경우 고령화사회에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예상되는 재정적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2025년까지 지역사회의 의료, 간호 및 예방간호 제공을 종합적으로 보장하는 ‘지역포괄케어시스템 (Community-based integrated care system)’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14]. 우리나라도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중심으로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그 효과는 미진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2025년이면 80세 이상 노인인구가 246만명에 이르러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되는 반면 생산 인구의 감소로 보험 수입 감소와 돌봄 비용 부담 증가에 따른 재정적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

〈Table 5〉 Summary of the Qualitative Research

(N=12)

Variables		n (%)
Study goal	Experience analysis of long-term care providers	6 (50.0)
	Nurses' perception	2 (16.7)
	Exploring practical nursing	2 (16.7)
	Experience in visiting nursing	1 (8.3)
	Coping with sexual violence	1 (8.3)
Research design	Content analysis	5 (41.7)
	Phenomenological exploring	3 (25.0)
	Others	4 (33.3)
Participants	Nurses	8 (66.7)
	Nurses and staffs	3 (25.0)
	Others	1 (8.3)
The number of participants	Not presented	1 (8.3)
	<10	2 (16.7)
	≥10~<15	6 (50.0)
	≥15	3 (25.0)
Average interview time per session (minutes)	Not presented	1 (8.3)
	<60	1 (8.3)
	≥60~<120	6 (50.0)
	≥120~<180	3 (25.1)
	≥180~<270	1 (8.3)
Number of interview questions	≤5	5 (41.7)
	≥5~<10	4 (33.3)
	≥10	3 (25.0)
Theoretical framework	Not presented	2 (16.6)
	Do not apply a philosophical background	5 (41.9)
	Colaizzi	2 (16.6)
	van Manen	2 (16.6)
	Agar	1 (8.3)
Suggestion (Duplicated) (n=22)	Improving the system	7 (31.8)
	Conducting further research	15 (68.2)
	Development of policy	0 (0.0)

[15]. 따라서 선행연구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향후 의료와 요양을 통합한 지역통합서비스센터 설립[10]과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상 방문간호를 필수사항 지정하고 기본방문간호를 신설하여 방문간호를 활성화 하는 방안[16] 등과 같이 가시적인 제도 변화를 견인하고 이로 인한 성과를 추적할 수 있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성과 측정의 맥락에서 국외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간호의 역할 확대를 통해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비용효과성 평가 연구도 함께 확대되어야 함을 확인하였다.

노인장기요양제도는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되는 제도로서, 초기 제도 도입 및 추진 방향을 탐색하기 위한 면담 및 전문가 자문연구가 다수 시도되었다. 초창기에 해당하는 만큼 향후 제도 활성화와 추진을 위한 근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일환으로 방문간호의 표준을 제시하거나[17] 현장에서 직접 적용할 수 있는 평가도구를 개발하는 연구[18,19] 등이 진행되었다. 구체적으로 방문간호센터 핵심성과지표, 노인요양시설 간호실무표준, 노인요양시설 거주 노인의 자아통합감 사정도구, 방문간호 질 평가도구, 인강중심돌봄 사정도구 등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장기요양제도 추진 과정에서 질 향상을 위한 지표를 확인하는 것이 전 세계적인 과제[20]임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연구도 이에 발맞추어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미국과 같은 경우 노인장기요양제도 서비스 질 평가는 대부분 정부 주도로 연구되거나 지원되는 데[21] 반해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내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이 주도하는 연구 외에는 일반 연구자에 대한 지원체계가 없어 노인장기요양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 기반이 매우 취약함을 알 수 있었다. 일본의 경우 노인장기요양제도의 서비스 품질을 측정하기 위한 공공 차원의 노력으로 2018년 이후부터는 국가 단위로 평가의 의무화 및 평가 표준화가 추진되고 있다[21].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제도의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개별 연구자의 연구비 지원 확대, 복지부 등 관련 기관과 노인장기요양 기관 간 산관 연구, 노인장기요양제도 발전 연구 공모 등 다각적 관점에서의 연구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축적된 연구 결과는 결과적으로 국가적 차원의 노인돌봄 제도 개편과 서비스 표준화를 견인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노인장기요양제도 내 간호 관련 중재 및 효과를 측정한 연구는 매우 소수에 불과하였다. 또한 연구의 대부분이 프로그램 적용 후 효과를 확인하는 것에서 끝나 이후 실제 적용 여부와 이에 따른 성과를 확인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확인되었다. 2017년 노인실태조사[22]에서는 응답자의 57.6%가 ‘거동이 불편해도 살던 곳에서 여생을 마치고 싶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시설입소를 지양하고 지역사회 통합 돌봄 활성화를 위하여 방문간호와 가정간호를 포함한 지역사회 중심 간호서비스가 더욱 활성화되어야 함을 뒷받침한다[23]. 덴마크는 정부주도 하에 지역별 수요에 맞춰서 방문간호센터를 설립[24]하고 ICT를 기반으로 한 홈헬퍼, 재활서비스 등의 다학제 간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여 24시간 지속가능한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25]. 스웨덴은 의사와의 연계 및 협조 체계가 제도적으로 구축되어 있어 간호사의 포괄사정에 근거하여 케어플랜을 작성하여 제공하며 간호사가

〈Table 6〉 Summary of the Secondary Analysis and other Research Methods (N=14)

Variables		n (%)
Study goal	Review overall system	8 (57.2)
	Identify the achievements and effects of visiting nursing services	4 (28.6)
	Others	2 (14.2)
Research design	Secondary data analysis	8 (57.2)
	Data envelopment analysis	1 (7.1)
	Review	4 (28.6)
	Mapping	1 (7.1)
Data source	Data base of LTC	9 (64.3)
	Others	7 (35.7)
Donabedian (Duplicated) (n=29)	Variable analyzed more than two times (Frequency)	
	Input Location of agencies (5) / Day (2) / Type of establishment (2) Type of operation (2)	16 (55.2)
	Process Output Total inpatient day (3) / Total outpatient day (3) / Total medical cost (2) Utilization (2)	0 (0.0) 13 (44.8)
Suggestion (Duplicated) (n=26)	Improving the system	10 (38.5)
	Conducting further research	9 (34.6)
	Development of policy	7 (26.9)

케어 코디네이터 또는 사례관리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대상자 관리를 위하여 제한된 범위의 약물, 물품 등은 방문간호사가 처방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26].

간호 증재는 노인장기요양제도 내에서 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간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선행 요소이기에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향후 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계 내에서 간호를 활성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독자적 간호서비스 개발과 이의 적용, 성과 평가 및 수가 적용이라는 단계적 과제를 수행해 나가야 하기에 먼저 간호체계와 간호단체를 중심으로 증재 연구를 지원하는 재원을 마련하여 연구를 장려하고 나아가 건강보험공단 및 시도 지방자치단체나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 관련된 각 정부 부처와 협력하여 국가 단위의 증재 연구, 효과 평가 연구가 시도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 때 연구의 방향은 앞서 고찰한 선진국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24시간 hot line 서비스 제공 체계가 구축을 위한 연구나 ICT 기반의 대상자 편의 극대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가 추진될 필요가 있다.

질적 연구의 적용은 제도 이용자, 서비스 제공자, 정책 개발자 등을 대상으로 노인장기요양제도 운영 경험과 관련된 내면의 인식과 사고를 탐색하여 미래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의 아이디어와 방향을 설정하는 데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영역이다. MacDonald 등[27]은 장기요양시설에서의 돌봄종사자와 가족의 동점심의 경험과 인식을 분석하여 배려가 노인 돌봄의 관계에서 필수적인 요소임을 확인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장기요양제도 내에서 간호 제공과 관련된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다양한 직군의 경험을 확인함으로써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를 보완하고 정책을 발전시키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질적 연구 또한 경험을 확인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연구를 통해 확보된 근거를 노인 돌봄 실무에 적용하는 연구로의 확장해 나가야 함을 제안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이차 분석은 제도 이용 전반에 대한 총괄적 통찰을 제시해 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노인장기요양제도 도입 이후 이용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방문간호의 이용은 정체되고 있다[7]. 이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통해 누구나 가정에서 ‘End of life’까지 질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 대조를 이룬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계 구축의 기반으로 추진한 통합재가급여서비스 또한 3차례의 시범사업 후에도 본 사업으로 도입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어 이와 관련하여 후속 연구 또한 다양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점이 파악되었다. 통합재가급여 서비스는 노인장기요양제도의 목표인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과 죽음에 대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유지를 위해서 필요하다. 또한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방문간호를 구심점

으로 하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계가 마련되어야 하며 이러한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 기반 연구의 추진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자료포락분석[28]이나 방문간호 원가계산[29] 등을 통해 열악한 방문간호센터의 경영 개선을 도모하는 연구도 소수 이루어졌다. 이는 지역사회 수요에 부응하는 필요수의 간호서비스 공급 체계를 이루기 위해 정부의 지원과 제도의 개선 외에 센터를 운영하는 경영자 개개인의 경영 역량을 향상시켜 보다 최적화된 기관 운영효율성을 달성하려는 관점에서 시도된 연구들이었다. 이러한 연구의 배경에는 방문간호센터 운영에 있어서 한정된 자원 하에서도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더 많은 간호인력이 노인장기요양제도 내로 유입되도록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장기노인요양보험을 도입한 일본에서도 방문간호센터의 효율성을 비교분석하는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30]. 이에 방문간호에 경영을 접목한 교육과정 개발과 센터별 맞춤형 경영 컨설팅 등 다양한 간호 경영연구도 활성화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결론 및 제언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제도의 발전은 지역사회 중심 간호의 발전과 맞물려 있다. 이에 제도 초기부터 제도 내 설계되어 있는 간호 영역의 확장과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노력과 시도가 있어 왔음을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다양한 대상자와 이해관계자, 연구 방법의 적용, 제도의 성과 혹은 간호의 효과를 입증하기 위한 광범위한 연구 변수의 탐색이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 지원의 미비, 정책 및 제도의 허점 등으로 인해 노인장기요양제도 내 간호의 활성화는 필요성과 확대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어느 시점에서부터는 기존의 해결되지 않은 장애요인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에 적체되어 더 이상 발전적인 대안을 제안하지 못하는 지점에 고착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검토한 91편 중 대다수의 연구에서 노인장기요양제도 내 간호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인력, 급여, 전달체계 개선을 통한 통합적인 방문간호 시스템 구축을 한 목소리로 강조하였다. 이에 향후 노인장기요양제도 내 간호와 간호 연구의 방향은 제도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으로 모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간호서비스 확대를 위한 밑거름이 되는 간호서비스 증재 연구의 확대와 이를 실무에 적용 후 성과를 확인하는 장기 연구 기반이 확충되어야 하며, 동시에 연구 성과를 취합하여 국가적 표준을 구축하는 데에 적용하는 정책 추진 연구도 확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간호의 확대에 따른 예방적 효과, 비용효과 혹은 비용편익과 같은 사회적 기대 효과도 검토되어야 한다. 조직 내 차원에서는 간호사의 간호 기관 운영을 도울 수 있도록 경영자 역

량을 강화하고 조직 관리 지식과 기술을 향상할 수 있는 교육 지원 프로그램 연구도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Conflicts of Interest

The authors declared no conflict of interest.

References

1. Lee YK, Jeong HS, Seok JE, Song HJ, Seo DM, Kim CW, et al.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the 2nd basic plan for long-term care (2018-2022). Policy Report. Sejong, South Korea: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7 November. Report No.: 2017-27.
2. Hwang JH. A legal study on the right of care management in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for the elderly. *Legal Theory and Practice Review*. 2019;7(2):61-79. <https://doi.org/10.30833/LTPR.2019.05.7.2.61>
3. Lim JM, Lee YK, Kang EN, Lim JY, Kim JY, Park YS, et al. A mid- to long-term plan for the supply of long-term care workers in a changing population structure. Research Report. Sejong, South Korea: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9 December. Report No.: 2019-24.
4. Park SA, Lim JY. Performance and requirements of visiting nursing care in long-term care insurance using the OMAHA System. *Korean Academic Society of Home Health Care Nursing*. 2017;24(2):181-188. <http://dx.doi.org/10.22705/jkashcn.2017.24.2.181>
5. Lee OZ, Kim KH. A study on improvement of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for the elderly. *Korean Academy of Social Work Practice and Research*. 2019;11(2):28-43.
6. Byun DH. Plan for invigoration of visiting nursing center in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 through SWOT analysis -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2015;29(2): 203-218(2015). <https://doi.org/10.5932/JKPHN.2015.29.2.203>
7. Hwang RI, Park SW. Status and trend of home health nursing for long-term care insurance beneficiaries.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2019;25(2):157-165. <https://doi.org/10.14370/JEWN.2019.25.2.157>
8. Lim JY, Kim EJ, Choi KW, Lee JS, Noh WJ. Analysis of barriers and activating factors of visiting nursing in long-term care.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2012;12(8):283-299. <https://doi.org/10.5392/JKCA.2012.12.08.283>
9. Kang EN, Lee YK, Lim JM, Joo BH, Bae HW. Long-term care research on the actual condition in 2019. Policy Report. Sejong, South Korea: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9 December. Report No.: 2019-32.
10. Lee GS, Sa GJ, Han MK, Ahn BK, Park YM. A study on the validity of visiting nursing model for integrated provision of medical and nursing services(Korean Nurses Association research report in 2018). Policy Reports. Seoul, South Korea: Korea Institute for Health & Welfare Policy, 2018.
11.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Status of long-term care institutions by city, county, and district and type of benefits [Internet]. Dajeon: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2021 [cite 2022 March 10]. Available from: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50&tblId=DT_35_006_N021
12. Donabedian A. Evaluating the quality of medical care. *The Milbank memorial fund quarterly*. 1966;44(3):166-206.
13. Cummings G, Estabrooks CA. The effects of hospital restructuring that included layoffs on individual nurses who remained employed: A systematic review of impact.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ology and Social Policy*. 2003;23(8/9):8-53. <https://doi.org/10.1108/01443330310790633>
14. Yamada M, Arai H. Long-term care system in Japan. *Annals of geriatric medicine and research*, 2020;24(3):174-180. <https://dx.doi.org/10.4235/agmr.20.0037>
15.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of South Korea. 2018-2022 2nd basic plan for long-term care [Internet]. Sejong: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of South Korea; 2018 [cited 2022 March 9]. Available from: 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19&CONT_SEQ=345605&page=1
16. Lim JY, Kim EJ, Choi KW, Lee JS, Noh WJ. Analysis of barriers and activating factors of visiting nursing in long-term care.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2012;12(8):283-299. <https://doi.org/10.5392/JKCA.2012.12.08.283>
17. Kim MH. Development of home visiting nursing standards based on a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program. *Korean Society of Public Health Nursing*. 2010;24(2): 285-301.
18. Kim JJ, Kim YS, Kang HY, Park JH, Seong MS, Woo YJ, et al. Development of home care quality indicators(HCQIs) at demonstration project of elderly care insurance program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2008; 28(2):377-394.
19. Tak YR, Woo HY, You SY, Kim JH.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Person-centered Care Assessment Tool in long-term care facilities in Korea.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015;45(3):415-419. <https://doi.org/10.4040/jkan.2015.45.3.412>
20. Igarashi A, Eltaybani S, Takaoka M, Noguchi-Watanabe M, Yamamoto-Mitani N. Quality assurance in long-term care and development of quality indicators in Japan. *Gerontology and Geriatric Medicine*. 2020;6:1-8. <https://doi.org/10.1177/2333721420975320>
21. Centers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 Home health compare [Internet]. Baltimore: U.S. Centers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 2022 [cited 2022 March 9]. Available from: <https://www.medicare.gov/care-compare/?providerType=HomeHealth&redirect=true>
22. Jeong KH, Kang EN, Kim KR, Oh YH, Oh MA, Lee YK, et al. Long-term care research on the actual condition in 2017. Policy Report. Sejong, South Korea: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7 November. Report No.:

- 2017-53.
23. Yang SJ, Han YR, Ham OK, Lee GA. Development of community-based multidisciplinary model for nursing, health care, and long-term care services: Focused on visiting nursing services. Research Report. Sejong, South Korea: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9. Report No.: 11-1352000-002592-01.
 24. Lee KS, Sa GJ, Han MK, Park YM. Community care theory and policy. Seoul: Korea Institute for Health & Welfare Policy, 2019.
 25. Pensionist. Visiting Nursing Center (VNC) [Internet]. Kolding: Denmark: Pensionist; 2019 [cited 2019 October 22]. Available from: <https://pensionist.dk/fritvalgsguiden/laes-mere?bId=315>
 26. Centers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 (CMS) [Internet]. Baltimore: U.S. Centers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 2019 [cited 2019 November 15]. Available from: <https://www.cms.gov/Medicare/Medicare-General-Information/MedicareGenInfo/index>
 27. Smith-MacDonald L, Venturato L, Hunter P, Kaasalainen S, Sussman T, McCleary L, et al. Perspectives and experiences of compassion in long-term care facilities within Canada: a qualitative study of patients, family members and health care providers. *BMC Geriatrics*. 2019;19(128):2-12. <https://doi.org/10.1186/s12877-019-1135-x>
 28. Lim JY, Kim SH, Oh ES, Song SY. Evaluation of operational efficiency among long-term care visiting nursing centers using data envelopment analysis. *Korean Academic Society of Home Health Care Nursing*. 2020;27(1):16-28. <https://doi.org/10.22705/jkashcn.2020.27.1.16>
 29. Kim JH, Lim JY.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cost management program for visiting nursing centers using time-driven activity-based costing.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019;49(5):586-600. <https://doi.org/10.4040/jkan.2019.49.5.586>
 30. Kuwahara Y, Nagato S, Taguchi A, Naruse T, Kawaguchi H, Murashima S. Measuring the efficiencies of visiting nurse service agencies using data envelopment analysis. *Health care management science*. 2013;16(3):228-235. <https://doi.org/10.1007/s10729-013-9228-0>

Nursing Research Trend in Long-Term Care Systems in Korea*

Lim, Ji Young¹⁾ · Kim, Yeseo²⁾ · Song, Sung Sook³⁾ · Kim, Sungjun²⁾

1)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Inha University

2) Master student, Department of Nursing Inha University

3) Doctoral student, Department of Nursing Inha University

Purpose: This study was performed to explore the trend of nursing research in the Korean long-term care system. **Methods:** Articles published between 2008 and 2021 were searched using the terms “long-term care system” and “nursing.” Ninety-one articles were analyzed and classified into five categories according to research methods. Data were extracted through a systematic review process and underwent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ntent analyses. **Results:** The most analyzed variable in the survey studies was job satisfaction. Many variables were classified into input and output factors using Donabedian’s model. The content analysis showed that most suggestions were about improving the political regulation system. **Conclusion:**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research foundation to provide research funding and support to cultivate future nursing research in long-term care. Systematic improvement of research in nursing should be continuously pursued to revitalize nursing services, expand nursing service interventions, and improve management competency programs in nursing institutions.

Key words : Long-term care System; Nurses; Nursing; Systematic review

*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 grant funded by the Korea government(MSIT) (No.NRF-2020R1A2C1003670).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Kim, Yeseo

Department of Nursing, Inha University

100, Inha-ro, Michuhol-gu, Incheon, Republic of Korea

Tel: +82-32-860-8218, Fax: +82-32-874-5880, E-mail: heartofgold1590@gmail.com